

## 陽明在泉 燥淫所勝의 病證과 氣味배합 분석

申舜植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方劑學教室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provide an analytical basis for existing or new prescriptions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To this end, prescriptions presented in the Various Changes in the Dominations of the Six Energies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Diseases of Plain Quest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in Yellow Emperor's Canon Internal Medicine.

This thesis focused on symptoms and prescriptions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which were described in the Various Changes in the Dominations of the Six Energies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Diseases of Plain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year when Yangmyeong is affecting the earth energy and the dryness energy is partially over-abundant. Those symptoms and prescriptions originate from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and six climates. The symptoms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hysiology. The prescriptions were first analyzed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in Yellow Emperor's Canon Internal Medicine. Then, a mix formula of oriental medicines pursuant to those prescriptions was studied. Lastly, established prescriptions, which were in conformity with the above prescriptions, were selected.

From the physiological point of view, symptoms with regard to the year when Yangmyeong is affecting the earth energy and the dryness energy is partially over-abundant can be, based on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and six climates, diagnosed as the symptoms from impaired liver due to excessive dryness energy. Established prescriptions pursuant to prescriptions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can be broken down into the following: bupleurum powder for relieving liver ki (Sihosogansan); powder for treating cold limbs (Sayeoksan); decoction of four ingredients (Samooltang); ease powder (Soyosan); decoction of gentian for purging liver fire (Yongdamsagantang).

Therefore, symptoms of six kinds of weather presented in the Various Changes in the Dominations of the Six Energies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Diseases of Plain Questions

can be analyzed from the physiological point of view. As a result, in addition to the methodology that analyzes existing prescriptions within the boundary of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in Yellow Emperor's Canon Internal Medicine, it is expected that a theoretical basis for new prescriptions can be provided by analyzing established prescriptions based on prescriptions from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Key Words : Sihosogansan, Sayeoksan, Samooltang, Soyosan, Yongdamsagantang

## 1. 緒論

韓藥은 氣味論에 입각하여 그 효능을 예측한다. 한약물 상호간의 길항작용·相乘작용·變性작용을 나타내는 藥性的 七情說과 方劑의 배합이론인 君臣佐使說도 氣味論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약학과 방제학은 기미론에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방처방이 기미론으로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황제내경』<sup>1)</sup>에는 13개의 方劑<sup>2)</sup>만이 기록되어 있고 運氣論의인 바탕위에서 기미처방을 『素問』의 『至眞要大論第74』에서 제시하고 있다.

역대의 많은 『황제내경』 注釋書에는 『至眞要大論第74』에 제시된 六氣의 병증과 기미처방에 대하여 주석이 달려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미처방에 맞는 한약 선별과 기존 方劑에 대한 기미론적 적용이나 創方을 시도한 의견은 내놓고 있지 않다.

『素問』의 『至眞要大論第74』에서 제시된 기미처방으로 『상한론』의 처방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成無己(약1063-1156년)<sup>3)</sup>이다. 그는 『傷寒明理論』(1156년)<sup>4)</sup>에서 『至眞要大論第74』의 기미처방을 끌어다가 『상한론』의 처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없이 잘못 적용하여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상한론』 처방에 대한 『내경』 기미론의 첫 분

3) 成無己(약1063-1156년)는 宋代 聊攝(지금 山東 陽谷縣) 사람이고, 집안대대로 儒醫였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하였으며 傷寒學에 정통하여 수십년간 이 연구에 몰두하였다. 저서로는 『注解傷寒論』 10卷(1144년)·『傷寒明理論』 3卷(1142년)·『藥方論』 1卷이 있다. (王雲凱 主編; 朱壯涌·康鎮彬·吳復蒼·劉仲喜 副主編. 『中國名醫名著名方』. 第1版 第1次印刷.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3: 35.)

3) 예를 들면 “『內經』所謂風淫所勝, 平以辛, 佐以苦, 以甘緩之, 以酸收之”와 “『內經』所謂風淫於內, 以甘緩之, 以辛散之”의 기미처방을 脾胃病을 치료하는 半夏瀉心湯과 같은 類에 적용하지 않고, 太陽中風을 치료하는 桂枝湯에 적용시킨 것은 『내경』의 병증과 기미처방의 충분한 이해없이 무리하게 『상한론』 처방을 분석한데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成無己 著; 朱鵬飛 校注. 『傷寒明理論』. 于伯海 主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第1版 第1次印刷. 華夏出版社, 1998: 124.)

5) 張元素(1151-1234년)은 字는 潔古이고 金代 易州(지금 河北省 易縣) 사람이다. 金元시기 “易水學派”의 창시자이다. 저서로는 『醫學啓源』 3권·『장부표본한일허설용약식』·『珍珠囊』 1권이 현존하고 있고, 그밖의 저서로는 『醫方』·『藥注難經』·『潔古本草』 등은 모두 佚失되었다.(王雲凱 主編; 朱壯涌·康鎮彬·吳復蒼·劉仲喜 副主編. 위의 책, 41-2.)

1) 『황제내경』은 『素問』과 『靈樞』로 구성되어 있다.  
1) ① 生鐵落飲(『素問』 「病能論」) ② 藜蘆湯(『素問』 「奇病論」) ③ 血枯方(『素問』 「腹中論」) ④ 澤瀉飲(『素問』 「病能論」) ⑤ 鷄矢醴(『素問』 「腹中論」) ⑥ 左角發酒(『素問』 「繆刺論」) ⑦ 半夏湯(『靈樞經』 「邪客」) ⑧ 菱翹飲(『靈樞經』 「癰疽」) ⑨ 小金丹(『素問遺篇』 「刺法論」) ⑩ 馬膏方(『靈樞經』 「經筋」) ⑪ 桂酒(『靈樞經』 「經筋」) ⑫ 豕膏方(『靈樞經』 「癰疽」) ⑬ 蜀椒桂酒(『靈樞經』 「壽夭剛柔」)(許濟群·王綿之 主編. 『方劑學』. 第1版 第2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

석으로 『내경』 기미처방의 처방분석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金代의 張元素(1151-1234년)<sup>5)</sup>는 『醫學啓源』(1186년) 「五行制方生克法」에서 『素問』 「至眞要大論第74」의 기미처방을 일부 인용하고<sup>6)</sup> 있으나 구체적으로 처방을 분석하고 적용시키는데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明代의 李時珍(1518-1593년)<sup>7)</sup>은 『本草綱目』(1578년)의 「五運六淫用藥式」<sup>8)</sup>에서 「至眞要大論第74」의 기미처방을 그대로 소개하고 약간의 해설을 붙여 그 중요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그 기미처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한약이나 방제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清代의 吳瑭(1758-1836년)<sup>9)</sup>은 『溫病條辨』(1798년)의 「卷一」 「風溫·溫熱·溫疫·溫毒·冬溫」의 「辛涼平劑銀翹散方」에서 “삼가 『내경』의 ‘風淫於內, 治以辛涼, 佐以苦甘; 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甘苦’의 가르침을 따른다”<sup>10)</sup>

고 하였고, 또한 「化斑湯方」의 「方論」<sup>11)</sup>과 「秋燥勝氣論」<sup>12)</sup>에서 『素問』 「至眞要大論第74」의 기미처방을 일부 인용하고 있으나 이의 기미처방을 운용하여 『溫病條辨』의 처방을 분석하고 적용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 玄谷 선생(1911-1987)<sup>13)</sup>이 『素問』의 「至眞要大論第74」에서 제시된 기미처방에 맞는 한약 선별의 예를 들고 있고 『상한론』의 처방까지 『내경』의 氣味藥性論의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sup>14)</sup> 이는 기존 방제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創方에 대하여 기미약성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三陰三陽證에서 陽明在泉 燥淫所勝의 病證을 분석하고 그 病證에 대하여

6) “當歸拈痛湯: 治濕熱爲病, 肢節煩痛, 肩背沈重, 胸膈不利, 遍身疼, 下注於脛, 腫痛不可忍。經云: ‘濕淫於內, 治以苦溫。’羌活苦辛, 透關利節而勝濕; 防風甘辛, 溫散經絡中流濕, 故以爲君。水性潤下, 升麻·葛根苦辛平, 味之薄者, 陰中之陽, 引而上行, 以苦發之也。白朮苦甘溫, 和中除濕; 蒼朮體輕浮, 氣力雄壯, 能去皮膚腠理之濕, 故以爲臣。血壅而不流則痛, 當歸身辛溫以散之, 使氣血各有所歸。人參·甘草甘溫, 補脾養正氣, 使苦藥不能傷胃。仲景云: 濕熱相會, 肢節煩痛, 苦參·黃芩·知母·茵陳者, 乃苦以泄之也。凡酒製藥, 以爲因用, 治濕不利小便, 非其治也。猪苓甘溫平, 澤瀉鹹平, 淡以滲之, 又能導其留飲, 故以爲佐。氣味相合, 上下分消, 其濕氣得以宣通也。”(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下), 第1版 第1次印刷。北京: 北京出版社, 1997: 2007.)

7) 李時珍(1518-1593년)은 字는 東壁이고 晚號는 瀕湖山人으로 明代 蕪州(지금의 湖北省 蕪春縣) 瓦礫壩人이다. 대대로 의사집안으로 30여년의 노력 끝에 61세때인 1578년에 本草學의 巨著인 『本草綱目』을 발간하였다. 그밖의 저서로는 『瀕湖脈學』(1564년)·『奇經八脈考』(1572년)이 있고, 나머지 『三焦客難』·『命門考』·『五臟圖論』·『瀕湖醫案』·『瀕湖集簡方』은 모두 佚失되었다.(王雲凱 主編, 朱壯涌·康鎖彬·吳復蒼·劉仲喜 副主編. 위의 책, 78-9.)

8) 李時珍 著. 『本草綱目』(校點本 第1冊).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74-6.

9) 吳瑭(1758-1836년)은 字는 鞠通이고 淮陰(지금의 江蘇省 淮陰) 사람이다. 1798년 『溫病條辨』을 지어 溫病의 三焦病機를 계통적으로 밝히고 治溫大法과 많은 名方을 수집하여 溫病學說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王雲凱 主編, 朱壯涌·康鎖彬·吳復蒼·劉仲喜 副主編. 위의 책, 149-51.)

10) “本方謹遵『內經』‘風淫於內, 治以辛涼, 佐以苦甘; 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甘苦’之訓。”(吳瑭 著; 王效菊 校注. 『溫病條辨』. 于伯海 主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第1版. 第1次印刷. 華夏出版社, 1998: 834.)

11) “此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苦甘法也。”(吳瑭 著; 王效菊 校注. 『溫病條辨』. 于伯海 主編. 위의 책, 836.)

12) “經以寒淫所勝, 治以甘熱, 此但燥淫所勝, 平以苦溫, 乃外用苦溫辛溫解表, 與冬月寒令而用麻桂薑附, 其法不同. 其和中攻裏則一, 故不立方。”(吳瑭 著; 王效菊 校注. 『溫病條辨』. 于伯海 主編. 위의 책, 846.)

13) 玄谷은 尹吉榮(1911-1987) 선생을 말한다. 玄谷은 선생의 號이다.

14) 尹吉榮 著.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 서울: 成輔社, 1983: 144-175.

제시된 氣味배합을 『황제내경』의 氣味藥性論으로 분석한 뒤에 이 氣味배합에 부합하는 기 존방제를 제시하였다.

## II. 本 論

### 1.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

『황제내경』의 기미약성론은 『素問』의 「生氣通天論篇第3」·「陰陽應象大論篇第5」·「五臟生成篇第10」·「藏氣法時論篇第22」·「宣明五氣篇第23」·「五運行大論篇第67」·「六元正紀大論篇第71」·「至眞要大論篇第74」와 『靈樞經』의 「五味第56」·「五味論第63」·「九鍼論第78」 등의 편에서 논하였다. 玄谷 선생은 이상의 『황제내경』의 여러 편에 제시되어 있는 氣味藥性を五味·약리작용·선택작용·부작용·五臟의 補와 瀉·有利·不利·病苦·所欲·味の 優劣·六氣 치료로 나누어 정리하고 표로 작성하였다.<sup>15)</sup>

酸味の 약리적 작용은 弛緩한 것을 收斂하고 肺를 補하고 肝을 瀉하며 肝과 筋에 親和性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筋病과 脾病에는 不利하며 肝病에는 利로우며 過食에서 오는 부작용은 肌肉이 臃腫하고 脣揚하며 小便이 癱閉하는 症이 있고 筋을 傷하며 甘味에는 優勢하나 辛味에는 劣勢하다.

苦味の 약리적 작용은 脆奕한 것을 堅固히 하고 發하고 泄하고 淸하며 腎을 補하고 脾를 瀉하며 心과 骨(骨이 血로 된 곳도 있다)에 淸化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肺病과 骨病(骨病이 血病으로 된 곳도 있다)에는 不利하

고 心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溫과 合하면 燥를 제거하고 熱과 合하면 濕을 제거하며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脾氣가 濡하지 못하여 胃氣가 厚해지고(胃에 溜하는 것을 말함) 皮膚가 枯燥하고 毛拔하며 嘔症이 있고 氣를 傷하며 辛味에는 優勢하나 鹹味에는 劣勢하다.

甘味の 약리적 작용은 急迫症狀을 緩和하고 脾를 補하며 心을 瀉하고 脾와 肉에 淸化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肉病과 腎病에는 不利하며 脾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熱과 合하면 內生의 寒을 제거하고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喘滿·色黑·悅心·骨痛·髮落의 症이 있으며 肉을 傷하며 鹹味에는 優勢하나 酸味에는 劣勢하다.

辛味の 약리적 작용은 興奮·發散하고 燥한 것을 潤하며 肝을 補하고 肺를 瀉하며 肺와 氣에 淸化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氣病과 肝病에는 不利하며 肺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熱과 合하면 外入의 寒을 제거하고 涼과 合하면 風을 제거하며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筋脈이 沮弛하여 精神에 害가 되며 筋急하고 爪枯하며 洞心하고 皮毛를 傷하며 酸味에는 優勢하나 苦味에는 劣勢하다.

鹹味の 약리적 작용은 堅한 것을 淸하고 心을 補하고 腎을 瀉하며 腎과 血(血이 骨로 된 곳도 있다)에 淸化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心病과 血病(血病이 骨病으로 된 곳도 있다)에는 不利하고 腎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寒과 合하면 熱과 火를 제거하고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大骨(腰高骨)의 氣를 傷하며 脈이 凝泣하여 色이 變하고 渴症이 있고 血을 傷하며 苦味에는 優勢하나 甘味에는 劣勢하다.

氣의 작용을 말하면 氣에는 和氣·溫氣·涼氣·熱氣·寒氣의 五氣가 있는데 味로써 補肝·補脾·補肺·補腎·瀉心하는 데는 和와 並用하고, 補心·瀉肺·瀉腎에는 溫과 병용하며, 瀉肝에는 涼과 병용하고, 瀉脾에는 或溫·或涼·或熱과 병용한다.

15) 이상의 『황제내경』의 氣味藥性論은 玄谷 선생이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尹吉榮 著, 앞의 책, 128-143.)에서 甘味·辛味·酸味·苦味·鹹味별로 정리하여 도표로 작성한 것을 五行의 순서에 따라 酸味·苦味·甘味·辛味·鹹味별로 정리하고 일부 오자를 교정한 것이다.

味로써 六氣를 治할 때, 治熱에는 寒과 병용하고, 治濕·治寒에는 熱과 병용하며, 治燥에는 溫과 병용하고, 治風에는 涼과 병용한다.

또, 甘은 緩하고, 辛은 散하고 潤하며, 酸은 收하고, 苦는 泄하고 燥하고 堅하며, 鹹은 軟하니 그 특성을 이용하여 苦急하면 甘으로 緩하고, 苦緩하면 酸으로 收하고, 苦濕하면 苦로 燥하고, 苦氣逆하면 苦로 泄하고, 苦燥하면 辛으로 潤하며 散하려면 辛으로 散하고 軟하려면 鹹으로 軟하고 緩하려면 甘으로 緩하고 收하려면 酸으로 收하고 堅하려면 苦로 堅한다.

또, 風은 辛으로 調上하고 寒은 溫하고 熱은 鹹으로 清하여 그 上을 調하고 苦로 發하고 酸으로 收하며 濕은 苦로 燥하고 甚하면 發하고 泄하며 火는 마땅히 鹹과 酸으로 滲하고 泄한

다(瀆는 瀆水로 氣味와 관계가 없어 뺀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표1)

## 2. 『素問』 「至眞要大論」에 제시된 陽明在泉 燥淫所勝의 病證 분석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陽明在泉, 燥淫所勝 하였을 때 제시한 병증은 다음과 같다:

제시한 병증 :

"歲陽明在泉, 燥淫所勝, …… 民病喜嘔, 嘔有苦, 善太息, 心脇痛不能反側, 甚則噎乾面塵, 身無膏澤, 足外反熱."<sup>16)</sup>

표1.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

味	作用	選擇作用	補	瀉	副作用	不利(五行相剋)	有利(本臟味)	病苦	所欲	味優劣(五行相剋)	六氣治療
酸味	收斂(澁味同)	肝筋	肺	肝	臍腸脣揭, 小便癢, 傷筋	脾病, 筋病(筋筋縮, 傷筋)	肝病	心苦緩酸收	欲收酸收	勝甘敗辛	
苦味	堅栗, 發清泄, 治燥, 治濕	心骨(血)	腎	脾	胃氣厚(留物), 皮膚枯燥, 拔毛, 傷氣	肺病, 骨病(骨寒, 傷骨)	心病	肺苦氣逆苦泄 脾苦濕苦燥	欲堅苦堅	勝辛敗鹹	濕苦 燥苦
甘味	緩和, 治內寒, 滲泄(淡滲泄)	脾肉	脾	心	喘滿, 色黑, 愧心, 骨痛, 髮落, 傷肉	腎病, 肉病(助濕, 傷肉)	脾病	肝苦急甘緩	欲緩甘緩	勝鹹敗酸	內寒甘
辛味	發散, 潤燥, 治風, 治外寒	肺氣	肝	肺	害精神, 筋急, 爪枯, 洞心, 傷皮毛	肝病, 氣病(筋脈阻馳, 傷氣)	肺病	腎苦燥辛潤	欲散辛散	勝酸敗苦	外寒辛 風辛
鹹味	奠堅, 下泄火, 治熱火	腎血(骨)	心	腎	大骨氣傷, 脈癢泣, 色變, 渴症, 傷血	心病, 血病(凝泣, 傷血)	腎病	脾苦厚鹹泄	欲奠鹹奠	勝苦敗甘	熱火鹹
氣	治熱에 并寒하고 治濕에 并熱하고 治燥에 并溫하고 治寒에 并熱하고 治風에 并涼하고; 補肝에 并和하고 瀉肝에 并涼하고; 補心에 并溫하고 瀉心에 并和하고; 補脾에 并和하고 瀉脾에 并溫或熱或涼하고; 補肺에 并和하고 瀉肺에 并溫하고; 補腎에 并和하고 瀉腎에 并溫한다.										
備考	『難經』에 五行相生相剋을 이용하여 實하면 瀉子하고 虛하면 補母한다고 하였다. 溫·熱은 發熱하니 甘·辛과 같은 작용을 하고, 寒·涼은 發泄하니 苦·鹹과 같은 작용을 하나 軟堅하는 작용이 없다.										

병증 한글풀이: 陽明燥金이 在泉의 해인 子午年에 燥氣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 , 사람들이 병들어 嘔逆을 잘하고 쓴 것이 올라오며 한숨을 잘 내쉬고 가슴과 옆구리가 아파 옆으로 돌아 누울 수 없으며, 심하면 목이 마르고 얼굴에 때가 끼이며 몸에 윤기가 없으면서 발의 바깥쪽에 도리어 열이 난다.

‘陽明在泉’은 陽明燥金在泉의 해를 가리킨다. 陽明在泉이면 반드시 少陰司天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해는 子年과 午年이다. ‘燥淫所勝’은 燥氣偏勝으로 기후는 涼에 치우쳐 있다. 在泉之氣는 일년중 하반기의 기후변화를 주관한다. 陽明在泉의 해의 하반기는 기후가 涼에 치우쳐 있고 燥氣가 편승하게 된다.

‘喜嘔’는 게우기를 잘 하는 것을 말한다. ‘嘔有苦’는 쓴 물을 게우는 것을 말한다. ‘善太息’은 숨을 길게 내쉬거나 깊게 들이쉬는 한숨을 잘 쉬는 것을 말한다. ‘心脇痛不能反側’에서 ‘心脇痛’은 胃脘部와 脇肋部가 아픈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완부와 험복부가 아파서 돌아 눕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甚則噤乾面塵’에서 ‘噤乾’은 목이 마른 것을 말하고, ‘面塵’은 얼굴에 먼지가 묻어 빛이 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身無膏澤’은 온몸의 피부가 축축하게 적셔지지 않아 광택이 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足外反熱’은 발등 바깥쪽에 열감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증상들은 『靈樞』 「經脈第10」의 足少陽膽經과 足厥陰肝經의 是動病에 열거된 증상들과 일치한다. “膽足少陽之脈, …… , 是動則病口苦, 善太息, 心脇痛不能轉側, 甚則面微有塵, 體無膏澤, 足外反熱, 是爲陽厥.”<sup>16)</sup> “肝足厥陰之

脈, …… , 是動則病腰痛不可以俛仰, 丈夫癢疝, 婦人少腹腫, 甚則噤乾, 面塵脫色.”<sup>18)</sup> 따라서 ‘陽明在泉, 燥淫所勝’의 병증은 肝膽질병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喜嘔’、‘嘔有苦’、‘心脇痛不能反側’은 肝乘胃와 관련되고, ‘善太息’은 肝反侮肺와 관련된다. ‘甚則噤乾面塵’、‘身無膏澤’은 肝失疏泄、氣血不調와 관계된다. ‘足外反熱’은 膽과 관계되는 데, 그 이유는 足少陽膽經脈은 “下出外踝之前, 循足附上, 入小指次指之間.”<sup>19)</sup> 하기 때문이다.

陽明燥金 在泉의 해에 肝膽病症이 생긴 이유는 陽明燥金 在泉의 해에 몸의 肺氣가 조절을 잃어버려 肺病에 걸리면 肺가 肝을 제압하지 못한 결과이다.<sup>20)</sup> 『新校正』에서는 “蓋陽明在泉之歲, 金王剋木, 故病如是.”<sup>21)</sup> 라고 하였고, 張介賓은 “此以金邪淫勝, 故肝膽受傷, 而爲病如此.”<sup>22)</sup> 라고 하였으며, 張隱庵은 “蓋金勝而肝膽病也.”<sup>23)</sup> 라고 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肺氣偏勝으로 肺자체는 물론이고 상극관계에 있는 肝에 영향을 주어 肺病、肝膽病이 발생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燥氣와 肺氣에 있음을 알 수 있다.

運氣論에서 六氣의 偏勝으로 생긴 氣候、物候、인체의 발병 상황은 일관되게 五行生克制

16) 郭霽春 編著.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至真要大論篇』第74. 第1版. 第1次印刷.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1: 474.  
17) 郭霽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第1版. 第1次印刷.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119.

18) 郭霽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위의 책, 122.  
19) 郭霽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앞의 책, 119.  
20) 方藥中·許家松 著.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427.  
21) 王冰 撰; 高保衡、林億 注. 『黃帝內經素問』. 第1版 第6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510.  
22) 張介賓 編著.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955.  
23) 鄭林、楊幼新、趙亞莉、李立祥 主校; 王玉興、翁連溪、孫燕平 協校. 『黃帝內經素問集注』. 鄭林 主編; 王國辰、孫中堂、齊昉 副主編. 『張志聰醫學全書』.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23.

化의 이론으로 되어 있고,<sup>24)</sup> 몸의 병증을 표현하는 방식은 운기론적인 방식보다는 몸의 병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몸의 臟腑와 六氣가 결합된 형식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운기론적인 방식에서 표현된 병증을 잘 분석해 보면 몸의 형식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歲陽明在泉, 燥淫所勝”은 陽明在泉의 해인 子年과 午年の 하반기에 燥氣가 편승하여 생긴 병증이라는 運氣論的인 용어는 『至眞要大論』의 “外淫於內, 所勝治之.”에 대한 王冰의 견해<sup>25)</sup>와 五行生克制化 이론에 의하여 燥氣外淫內傷肝證으로 바꿀 수 있다.

### 3. 『素問』 「至眞要大論」에 제시된 陽明在泉 燥淫所勝의 氣味배합 분석과 溫病方劑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陽明在泉, 燥淫所勝 하였을 때 제시한 氣味배합은 다음과 같다:

제시한 기미배합 :

“燥淫於內, 治以苦溫, 佐以酸<sup>26)</sup>辛, 以苦下之, 以鹹瀉之<sup>27)</sup>28).”

기미배합의 한글표어: 燥邪가 몸안에 침범하면 ‘苦溫’의 한약을 君藥으로 하고 ‘酸辛味’

의 한약을 臣藥으로 하고 ‘苦味’의 한약을 佐藥으로 하여 내려가게 하며 ‘鹹味’의 한약을 使藥으로 하여 瀉下시킨다.

이상의 氣味배합은 두가지의 분석이 가능하다.

1)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표1)에 의하면, 燥氣가 몸의 안이나 밖에서 침범하면 ‘苦溫’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肺가 氣逆으로 고통을 받으면 ‘苦味’를 급히 써야 한다고 하였으니 ‘苦味’로 肺의 逆氣를 내려주고 ‘溫’으로 淸氣를 제어하는 ‘苦溫’의 한약을 君藥으로 하여 燥를 치료한다. 그러나 ‘苦溫’은 燥濕하여 燥하여져 氣가 안에서 맺히기 쉽고 肝을 다치게 할 수 있어 補肝작용과 疏散작용이 있는 ‘辛味’와 辛勝酸의 味の 우열관계를 갖고 있는 ‘酸味’의 한약을 臣藥으로 하며, 下泄작용이 있는 ‘苦味’의 한약을 佐藥으로 하여 內燥를 평정하며 補心작용이 있는 ‘鹹味’의 한약을 使藥으로 하여 폐기활동이상으로 생기는 燥를 평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2)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표1)에 의하면, 燥氣가 몸의 안이나 밖에서 침범하면 ‘苦溫’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肺가 氣逆으로 고통을 받으면 ‘苦味’를 급히 써야 한다고 하였으니 ‘苦味’로 肺의 逆氣를 내려주고 ‘溫’으로 淸氣를 제어하는 ‘苦溫’의 한약을 君藥으로 하여 燥를 치료한다. 그러나 補腎하여 腎氣활동이상으로 생기는 寒을 조장하므로 相克관계에 있는 心이 더욱 손상을 받아 心氣활동이상으로 생기는 熱이 動하게 된다. 熱이 動하면 肺氣를 상하여 燥를 動하고 燥가 動하면 肝을 傷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辛勝酸의 味の 우열관계를 갖고 있고 補肝작용과 瀉肺작용의 ‘辛味’와 補肺작용과 瀉肝작용의 ‘酸味’를 적절히 배합하므로써 燥氣偏勝을 제어하게 된다. 下泄작용이 있는 ‘苦味’의 한약을 佐藥으로 하여 內燥를 평정하며 補心작용이 있는 ‘鹹味’의 한약을

24) “六氣淫勝의氣候, 物候及人體發病情況, 始終貫穿着五行生克制化的理論.”(梁運通主編, 『黃帝內經類析』, 第1版 第1次印刷, 呼和浩特市: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536.)

24) “上淫於下, 天之氣也, 外淫於內, 地之氣也. 隨所制勝, 而以平治之也.”(王冰 撰; 高保衡, 林億 注, 『黃帝內經素問』, 위의 책, 507.)

24) ‘酸’字는 본래 ‘甘’字로 되어 있는데, 林校에 의하여 교정한 것이다.

27) ‘以鹹瀉之’는 본래 ‘寒淫於內, 治以甘熱, 佐以苦辛’의 다음에 있었던 것을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郭靄春의 견해)

28) 郭靄春 編者,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至眞要大論篇』第74. 위의 책, 475.

使藥으로 하여 폐기활동이상으로 생기는燥를 평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위의 기미배합에 근거하여 임의로 한약을 선정하여 방제를 구성할 수 있다.(표2 참조)

위의 표2와 같이 기미배합에 근거하여 많은 수의 방제를 만들 수 있고, 이들 방제중에서 우열을 가려 우수한 방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첫째, 한약 선택이 한약학적으로 가장 病症에 적합한 약물인가?

표2. 陽明在泉 燥淫所勝의 氣味배합에<sup>1)</sup>

氣味배합 方劑에	治以苦溫	佐以酸辛	以苦下之	以鹹瀉之
	君藥	臣藥	佐藥	使藥
방제 ①	旋覆花(苦辛鹹微溫)	白芍藥(苦酸甘微寒) 當歸(甘辛溫)	沙蔘(甘微苦微寒)	澤瀉(甘鹹寒)
방제 ②	杏仁(苦微溫)	五味子(酸甘溫) 半夏(辛溫)	杏仁(苦微溫)	虻蛄(鹹寒)
방제 ③	百部根(甘苦微溫)	山茱萸(酸澁微溫) 生薑(辛溫)	前胡(苦辛微寒)	車前子(甘鹹寒)
陽明在泉 燥淫所勝 방제 ④	紫菀(辛苦溫)	訶子(苦酸澁平) 陳皮(苦辛溫)	前胡(苦辛微寒)	芒硝(鹹苦寒)
방제 ⑤	款冬花(辛微苦溫)	烏梅(酸澁平) 細辛(辛溫)	枳殼(苦辛涼)	石決明(鹹寒)
방제 ⑥	桔梗(苦辛平) 紫蘇子(辛溫)	五倍子(酸澁寒) 川芎(辛溫)	黃芩(苦寒)	牡蠣粉(鹹澁微寒)
·	·	·	·	·
·	·	·	·	·
·	·	·	·	·

표3. 陽明在泉 燥淫所勝의 기미배합에 맞는 기존方劑에

氣味배합 기존方劑	治以苦溫	佐以酸辛	以苦下之	以鹹瀉之
	君藥	臣藥	佐藥	使藥
柴胡疏肝散	柴胡(苦辛微寒); 甘草(甘平)	赤芍藥(酸苦微寒); 川芎(辛溫)、陳皮(苦辛溫)	枳殼(苦辛涼)、 香附子(辛微苦微甘平)	
四逆散	柴胡(苦辛微寒); 炙甘草(甘溫)	赤芍藥(酸苦微寒); 枳實(苦辛酸微寒)	枳實(苦辛酸微寒)	
陽明在泉 燥淫所勝 四物湯	赤芍藥(酸苦微寒); 熟地黃(甘微溫)	赤芍藥(酸苦微寒); 當歸(甘辛溫)、川芎(辛溫)	赤芍藥(酸苦微寒)	
逍遙散	柴胡(苦辛微寒); 炙甘草(甘溫)	赤芍藥(酸苦微寒); 當歸(甘辛溫)、煨薑(辛溫)、薄荷(辛涼)	白朮(苦甘溫)	茯苓(甘淡平)
龍膽瀉肝湯	龍膽草(苦寒)、 山梔子(苦寒); 當歸(甘辛溫)	柴胡(苦辛微寒)、當歸(甘辛溫)	黃芩(苦寒)、生地黃(甘苦寒)、木通(苦寒)	車前子(甘鹹寒)、澤瀉(甘鹹寒)、生甘草(甘平)

둘째, 한약들 사이의 협동작용과 拮抗作用이 가장 효과적이 되도록 배합되었나? 세계, 환자의 체질에 적합한가? 세 가지를 따져보아 결합이 없으면 우선 우수한 방제로 보고 임상결과로 확정짓는다.

또한, 약물에는 複味도 있고 一味로는 약하여 數味를 합하여야 할 때도 있고, 협동작용을 얻기 위하여 藥味를 더할 때도 있고, 味를 무시하고 氣만을 취할 때도 있으므로 藥味의 수는 氣味로 표시한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sup>29)</sup>

위의 기미배합에 적합한 기존방제로는 柴胡疏肝散, 四逆散, 四物湯, 逍遙散, 龍膽瀉肝湯 등을 선별할 수 있다.(표3 참조)

#### 4. 『素問』 「至眞要大論」에 제시된 陽明在泉 熱氣反勝의 氣味배합 분석과 기존方劑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陽明在泉, 熱氣反勝 하였을 때 제시한 氣味배합은 다음과 같다:

제시한 기미배합

"燥司於地, 熱反勝之, 治以辛<sup>30)</sup>寒, 佐以苦甘, 以酸平之, 以和爲利."<sup>31)</sup>

기미배합의 한글풀이: 陽明燥金의 在泉의 해에 燥氣가 편승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도리어 熱氣가 偏勝하여 기후가 火熱에 치우친 경우이다. 熱邪가 몸안에 침범하면 '辛寒'의 한약

표4. 陽明在泉 熱氣反勝의 기미배합에

方劑예	氣味배합	治以辛寒	佐以苦甘	以酸平之, 以和爲利
		君藥	臣藥	佐藥
陽明在泉 熱氣反勝	방제 ①	薄荷(辛涼) 金銀花(甘寒)	連翹(苦微寒) 甘草(甘平)	白芍藥(苦酸甘微寒)
	방제 ②	荊芥(辛平) 金銀花(甘寒)	黃芩(苦寒), 草龍膽(苦寒) 大棗(甘溫)	五味子(酸甘溫)
	방제 ③	牛蒡子(辛苦寒)	黃柏(苦寒), 苦參(苦寒) 飴糖(甘溫)	山茱萸(酸澁微溫)
	방제 ④	蟬蛻(辛甘微寒)	梔子(苦寒), 草龍膽(苦寒) 蜂蜜(甘平)	訶子(苦酸澁平)
	방제 ⑤	菊花(辛甘苦微寒)	苦參(苦寒), 黃連(苦寒) 黃芪(甘微溫)	烏梅(酸澁平)
	방제 ⑥	蔓荊子(辛苦微寒)	黃連(苦寒), 黃柏(苦寒) 白朮(苦甘溫)	五倍子(酸澁寒)
	⋮	⋮	⋮	⋮

을 君藥으로 하고 '苦甘味'의 한약을 臣藥으로 하고 '酸味'의 한약을 佐藥으로 하여 몸안의 正氣를 고르게 한다. 화평한 것을 이로운 것으로 한다.

본 氣味배합은 '辛寒'을 君藥으로 하여 熱을 치료하고, '苦甘味'를 臣藥으로 하여 '苦味'로

29) 尹吉榮 著.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 위의 책, 145-6.

29) '辛'字는 본래 '平'字로 되어 있었는데, 『素問校註』에 따라 이를 교정한 것이다.

31)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至眞要大論篇」第74. 위의 책, 479.

표5. 陽明在泉 熱氣反勝의 기미배합에 맞는 기존方劑에

기존方劑	氣味배합		
	治以辛寒	佐以苦甘	以酸平之, 以和爲利
	君藥	臣藥	佐藥
銀翹散	薄荷(辛涼)、荊芥穗(辛平)、淡豆豉(辛微寒); 金銀花(甘寒)	連翹(苦微寒)、牛蒡子(辛苦寒)、桔梗(苦辛平); 竹葉(辛甘淡寒)、蘆根(甘寒)、生甘草(甘平)	
陽明在泉 熱氣反勝	桑菊飲	薄荷(辛涼)、菊花(辛甘苦微寒)	桑葉(苦甘微寒)、連翹(苦微寒)、杏仁(苦微溫)、桔梗(苦辛平); 蘆根(甘寒)、甘草(甘平)
	補肺湯	桑白皮(甘寒)	紫菀(苦甘溫); 人蔘(甘微苦微溫)、黃芪(甘微溫)、熟地黃(甘微溫) 五味子(酸甘溫)
	柴葛解肌湯	羌活(辛苦溫)、白芷(辛溫)、生薑(辛溫); 黃芩(苦寒)、生石膏(辛甘寒)	柴胡(苦辛微寒)、桔梗(苦辛平); 葛根(甘辛涼)、大棗(甘溫)、甘草(甘平) 白芍藥(苦酸甘微寒)

泄熱하고 ‘甘味’로 緩和하며, ‘酸味’를 佐藥으로 하여 몸안의 正氣를 고르게 한다. 화평한 것을 그 한도로 한다.

위의 기미배합에 적합한 기존방제로는 銀翹散、桑菊飲、補肺湯、柴葛解肌湯 등을 선별할 수 있다.(표5 참조)

### III. 맺음말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입각하여 『素問』의 「至眞要大論第74」에 제시된 氣味배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방제나 創方의 氣味論的 분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素問』의 「至眞要大論第74」에 제시된 “陽明在泉 燥淫所勝”의 병증과 氣味배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병증과 배합은 運氣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陽明在泉 燥淫所勝”의 병증을 운기론에서 인체론으로 분석하였고, 氣味

배합은 『황제내경』의 氣味藥性論에 입각하여 분석한 뒤에 氣味배합에 맞는 한약배합을 시도하고, 이 기미배합에 부합하는 기존 방제를 선별하였다.

運氣論에 바탕을 둔 ‘陽明在泉 燥淫所勝’의 병증을 인체론으로 바꾸어 보면 燥氣外淫內傷肝證으로 볼 수 있고, 이의 기미배합에 부합하는 기존방제는 柴胡疏肝散、四逆散、四物湯、逍遙散、龍膽瀉肝湯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陽明在泉, 熱氣反勝’의 기미배합에 부합하는 기존방제는 銀翹散、桑菊飲、補肺湯、柴葛解肌湯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素問』 「至眞要大論第74」에 제시된 運氣論의 六氣의 병증을 人體論의 氣味배합으로 바꿀 수 있고, 『황제내경』의 氣味藥性論에 바탕을 두고 제시된 氣味배합으로 기존방제를 분석함으로써 한약학과 방제학 본래의 氣味藥性論의 인 체계에서 기존 방제를 분석하는 방법론 뿐만이 아니고 創方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색인어

『素問』 「至真要大論」, 氣味藥性論, 運氣論, 氣味方劑, 陽明在泉 燥淫所勝

#### V. 참고문헌

1. 許濟群、王綿之 主編. 『方劑學』. 第1版 第2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 王雲凱 主編; 朱壯涌、康鎖彬、吳復蒼、劉仲喜 副主編. 『中國名醫名著名方』. 第1版 第1次印刷.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3.
3. 成無己 著; 朱鵬飛 校注. 『傷寒明理論』. 于伯海 主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第1版. 第1次印刷. 華夏出版社, 1998.
4.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下).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北京出版社, 1997.
5. 李時珍 著. 『本草綱目』(校點本 第1冊).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6. 吳瑭 著; 王效菊 校注. 『溫病條辨』. 于伯海 主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第1版. 第1次印刷. 華夏出版社, 1998.
7. 尹吉榮 著.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 서울: 成輔社, 1983.
8.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第1版. 第1次印刷.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1.
9.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第1版. 第1次印刷.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10. 方藥中、許家松 著.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1. 王冰 撰; 高保衡、林億 注. 『黃帝內經素問』. 第1版 第6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2. 張介賓 編著.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13. 鄭林、楊幼新、趙亞莉、李立祥 主校; 王玉興、翁連溪、孫燕平 協校. 『黃帝內經素問集注』. 鄭林 主編; 王國辰、孫中堂、齊昉 副主編. 『張志聰醫學全書』.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4. 梁運通 主編. 『黃帝內經類析』. 第1版 第1次印刷. 呼和浩特市: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15. 高學敏 主編. 『中藥學』. 第1版 第2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